

OUCH!

전 국민대상 월간 정보보호 인식제고 뉴스레터

이메일 사용시 주의사항

개요

이메일은 개인적인 사항 또는 업무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메일을 사용할 때, 우리 자신이 바로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메일 이용 시 매일매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와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 자동 완성기능

자동완성 기능은 대부분의 이메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제공합니다. 이메일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입력하면, 이메일 프로그램에서 자동적으로 이메일 주소를 선택해 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이메일 주소를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대신 수신자 이름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동 완성 기능의 문제점은 비슷한 이름이 많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자동 완성기능을 사용시 잘못된 이메일 주소를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회계부서의 “김민수”에게 금융관련 정보를 이메일로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대신 자동완성 기능으로 “김민서”(자녀 학원 선생님)가 선택될 수 있습니다. 이 결과 비인가된 사람들에게 회사의 민감한 정보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메일 “보내기”버튼을 누르기 전에 항상 이름과 이메일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 전체 답장

이메일 작성 시 “받는 사람” 이외에 “참조” 란이 있습니다. 참조(cc)는 “carbon copy”을 줄임말이며, 이 기능은 참조된 사람에게 이메일을 복사 또는 정보를 주고자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 이메일에 참조인으로 있는 경우, 우리는 발신자에게만 답장할 지 아니면 참조가 포함된 모든 사람에게 답장할 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답장에 민감한 내용이 있다면 발신자에게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로 “전체 답장”을 누르기가 매우 쉽습니다. 즉, 이메일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답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민감한 이메일을 보내거나 답장을 보낼 때마다, 항상 보내기를 누르기 전에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 사람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 감정통제

감정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메일을 보내면 안됩니다. 만약에 감정적인 상태에서 이메일을 발송하게 되면 미래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친구관계나 직장 등에 큰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을 갖고 생각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흥분된 감정을 발산해야 한다면, 먼저 메모장을 열어서 말하고 싶은 것을 적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컴퓨터에서 벗어나 잠시 커피한잔 하거나 산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와서 작성한 내용을 삭제하고 다시 시작해 보기 바랍니다. 또는 이메일로는 정확한 의도를 전달하기 힘들다면 전화로 얘기하거나 직접 대면해서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이메일로 말하는 억양이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전화나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감정적인 이메일에서 유머 (특히 비꼬는 유머)가 항상 잘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들은 당신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프라이버시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이메일은 프라이버시 보호기능이 거의 없으며, 누구나 접근만 하면 읽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은 엽서와 유사한 것입니다. 한 번 보낸 이메일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송될 수도 있고 인터넷에 공개될 수 있으며, 법원 영장 또는 서버가 해킹되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사적인 내용이라면, 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이메일은 법원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메일 발송 시 회사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이메일을 모니터링 및 읽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글판

본 문서는 한국의 ITL(<http://www.itlkorea.kr>)에서 번역하였습니다. ITL은 미국 SANS 연구소의 한국 파트너로서 IT 거버넌스 및 IT 보안 분야의 최신의 지식과, 양질의 교육과 세미나를 진행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itl@itlkorea.kr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객원 편집자

케이스 팔그렌은 30년 이상 보안업계 종사하고 있는 보안 실무자이다. 케이스는 NetIP, Inc.의 CEO이자 SANS SEC301 - “사이버보안 소개” 과정 저자이다(<https://sans.org/sec301>).



참고자료

피싱 차단: <https://www.sans.org/u/lJj>

사회공학: <https://www.sans.org/u/lJo>

이메일 자동완성 목록 관리:

원도 맥

OUCH!는 SANS Security Awareness 프로그램에 의해 발행되며 [Creative Commons BY-NC-ND 4.0](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 이 문서는 출처를 밝히고, 상업적 목적 또는 수정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번역 및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www.sans.org/security-awareness/ouch-newsletter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위원회: Walt Scrivens, Phil Hoffman, Cathy Click, Cheryl Conley | 번역: 진수희 (ITL Inc.)